주 일 예 배

2019년 12월 1일 인도: 이규본목사

* 찬양 SONG OF PRAISE		다함께
*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25장	다함께
대표기도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 3:10-11(Philippians)	인도자
찬양 CHOIR		찬양대
말씀 SERMON	"그리스도를 아는 길" "The way to know Christ"	이규본목사
성찬식 COMMUNION		다함께
헌금 OFFERING		다함께
* 헌금기도 OFFERING PRAYER		인도자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찬송 HYMN	102장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규본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소식

1. 오늘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 **12월 헌금송**: David Lason,12/1: 바나바선교회 12/8: 에스더선교회
3. **성찬식**: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 바랍니다
   성찬위원 : 김남규, 박재현, 박휘영, 이응두
4. **신학교를 위한 자선음악회**: 윤석진교수(Greg Yoon/ 아시아 3대 테너) 초청
   1)일시: 12/8(주일) 오후 6시 2)장소: 뉴욕장로교회(43-23 37Ave. L.I.C., NY 11101)
   초청장을 많이 전해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5.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East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ERTS)가
   개강하였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경공부와 셀 모임 있습니다.

금주의 말씀 (12. 1. 2019)

본문: 빌 3:10-11 제목: 그리스도를 아는 길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며" (빌 3:10-11)

사도 바울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보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린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런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는가?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무엇 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합니다.

1.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격과의 소유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케인입니다.
이는 어떤 진리를 내가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에서 온 것입니다.
즉 몸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이요. 사랑입니다.

2. 그리스도를 아는 중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의 경험한 대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터 예수를 알았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 이것이 핵심이요. 부활 사건 없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자기가 참여하여 알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당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도 알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터널을 통해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 죽고서 부활 하겠다는 뜻입니다.

목회수상 “ 하나님께 소망을 둔 신앙 ”

그리스인들은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은 자체가 소망인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계속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별 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한 것이다.

이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신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탈출을 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모세를 따라갔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금방 나타나지 않고 끝없는 광야와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과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 이었을까?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덤으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믿음을 가진 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잘 안지 못하고 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도 진정한 소망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자신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의 습관을 벗어 버리고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던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 (12012019)

2019년 기도제목

1. 말씀충만, 믿음충만, 성령충만, 지혜충만, 은혜충만, 권능충만 (행 6)
2. 내 집을 채우라 - 전도 (눅 14)
3.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 (엡 4)
4. 성전 건축을 위하여 (왕상 6, 학 1)
5. 주일학교, EM, Cell의 교육과 부흥을 위하여 (딤전 4)
6. GCTS와 ERTS의 발전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담임목사 : 이규본
*행정전도사 : 현종영
*교육전도사 : 최화숙, 전행복(EM)
*전도사 : 박휘영, 한우연
*장로: 안석원 *권사: 이재숙
*안수집사: 김남규, 박재현, 이응두
*지휘: 김명애 *반주: 서난숙
*찬양대: 김남규, 박휘영, 현종영
이재숙, 이 윤, 장수자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월-토 5:5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셀 모임	모이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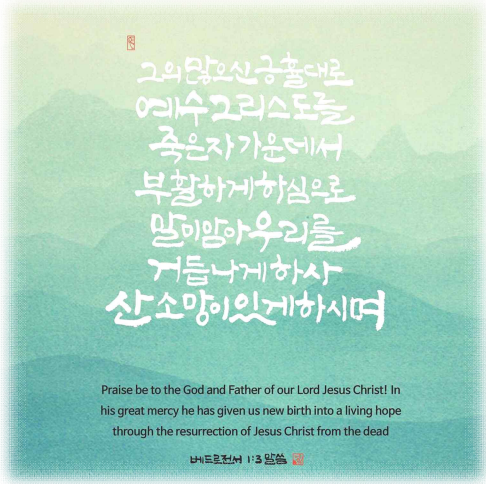
제 12권 48호 주후 2019년 12월 1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주 비 전 교 회

산 소망으로 살라(벧전 1:3)

“Live with the Living Hope”



The Lord's Vision Community Church
90 Plandome Road, Manhasset, NY 11030
TEL: (718) 787-8999, (856) 308-6997
담임목사: 이 규 본 (Rev. David Bon Rhee)
email: bonerhee@gmail.com www.juvision.org